

KOSDAQ | 자본재

씨메스 (475400)

독독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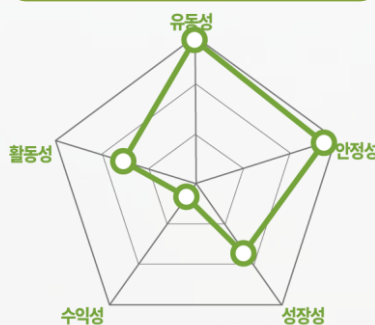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씨메스는 2014년 설립된 비전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1) 지능형 로봇 솔루션, 2) 3D(3차원) 검사 솔루션.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 73%, 3D 검사 솔루션 16%, 유통 및 기타 11%
- 투자포인트는 1) 업계에서 인정받은 로봇 S/W 관련 기술력, 2) 글로벌 물류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 리스크 요인은 1) 경기 악화로 본격적인 로봇 시장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 2) 중국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판가 하방 압력 가능성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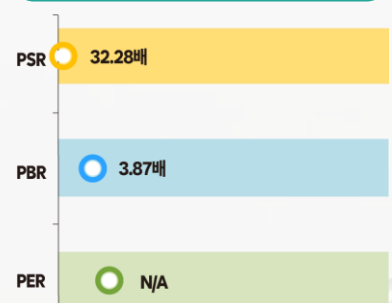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씨메스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

2024년 설립된 비전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 2024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 비중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 73%, 3D 검사 솔루션 16%, 유통 및 기타 11%

국내/외 로봇 산업 현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국내 로봇 시장은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개선. 특히, 2024년 국내 주요 로봇 6개사의 합산 매출액은 1,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성장. 한편, 글로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45.5%로 고성장할 전망.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선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 국내 로봇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산업/산학 협력 등을 통해 미국,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2025년, 전년 대비 매출액은 성장하나 영업이익은 적자지속 전망

2025년 연간 매출액 101억 원(+46.9% YoY)으로 예상. 지연되었던 주력 고객향 대량 납품 건이 일부 하반기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2H25부터 경기 반등 등으로 고객 주문 회복을 전망하기 때문. 연간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망.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 미비로 영업적자 폭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 장비(서버 등) 구입비, 연구개발 위한 인건비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 영업적자 규모는 2025년 정점 이후 2026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 흑자전환 가능 시기는 2027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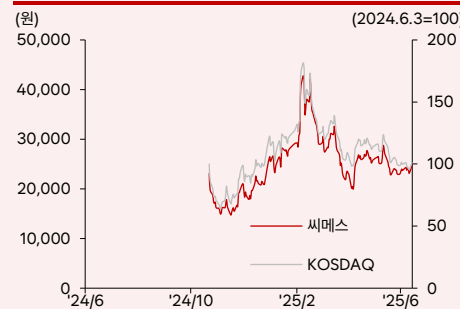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47	76	69	101	210
YoY(%)	N/A	63.2	-9.8	46.9	107.5
영업이익(억원)	-67	-100	-143	-157	-81
OP 마진(%)	-144.2	-130.7	-207.4	-154.9	-38.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91	-157	-135	-149	-73
EPS(원)	-1,030	-1,752	-1,402	-1,282	-629
YoY(%)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0.0	0.0	33.5	28.3	13.7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N/A	0.0	3.8	4.8	5.5
ROE(%)	182.1	-219.6	-28.8	-22.3	-13.1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6/16)	24,700원
52주 최고가	42,750원
52주 최저가	14,760원
KOSDAQ (6/16)	777.26p
자본금	58억원
시가총액	2,86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66억원
외국인지분율	30.5%
주요주주	이성호 외 2인 37.73%
	SK텔레콤 6.5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8	16.5	
상대주가	-14.0	4.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채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2014년에 설립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

씨메스는 2014년 설립된 AI 기술 기반 지능형 로봇 S/W 기업

씨메스는 2014년 설립된 비전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이다. 씨메스의 영위 사업은 1) 지능형 로봇 솔루션, 2) 3D(3차원) 검사 솔루션, 3) 기타(유통 등)이다. 이 중 주력 사업인 두 사업 부문 모두 머신비전 3차원 형상 측정 및 인식, 위치가이드(Positioning and Robot Guidance)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로봇의 정밀한 가이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차원 형상 및 위치의 측정/인식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로봇을 정밀하게 가이드한다는 점에서 두 사업부문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내/외 우수 기업과 협업하며 AI 기반 로봇 솔루션 기술력 바탕으로 2024년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

씨메스는 2014년 9월 회사 설립 이후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7년 SK텔레콤의 투자(9억 원)를 유치하였으며, 덴마크 협동로봇 기업 유니버설로봇의 인증 개발사로 등록되었다. 2018년 LG화학, 나이키에 신규 설비업체로 등록되었고, 2019년 현대차의 자동 로봇 티칭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CJ대한통운에 3D 디팔레이터 로봇을 개발/납품하였다. 2020년 LG전자 자동차 사업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2021년 씨메스는 미국 시애틀 지사(CMES Robotics Inc.)를 설립하였고, GS리테일 및 기타 회사들로부터 투자(시리즈 B 펀딩)를 유치하였다. 2022년 당사는 물류 AI/로봇 솔루션 관련 현대무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천안시에 CMES AI 로봇센터를 설립하였으며, SK텔레콤으로부터는 추가 투자(시리즈 B 추가 펀딩 100억 원)를 획득하였다. 2023년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상'을 받기도 하였다. 2024년 4월 물류/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씨메스에 대해 지분투자를 단행하였고(투자금액 미공개), 10월 씨메스는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주요 연혁

2014~2017 회사 설립 및 핵심 기술 개발	2018~2020 우량 고객사 확보로 성장 기반 마련	2021~현재 AI투자 확대로 지능형 로봇 시장 개척
2014 주식회사 씨메스 설립(대전) 3D 스캐너 개발 자동차 캐뉼러 3D 검사 솔루션 개발 창조경제혁신센터 1기 선정 2015 3D 살린트 검사기 개발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서울) 2016 ICT 유망기업(K-global 300) 선정 나이키 로봇 자동 미드솔 페인팅 솔루션 개발 2017 SK텔레콤 투자 유치 9억 수출설비 CE 인증(콘타넨탈 필리핀)	2018 미국 NASA 신규 설계업체 등록 및 발주 유입 Photoneo사와 Gold Integrator 등록 LG화학 벤더 등록 ABB Korea와 기술 MOU 체결 2019 현대자동차 자동 로봇 티칭 R&D 프로젝트 수주 CJ대한통운 로봇 3D 디팔레이터 개발 및 납품 2020 LG전자 자동차 사업부 R&D 프로젝트 수주 글로벌 IT 기업 고정밀 로봇 가이드 시스템 양산성 검증 완료	2021 CMES Robotics 미국지사 설립(시애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3D 로봇 가이드 시스템 설치 천안 사무실 및 Robot Center 개소 GS리테일 투자유치(Series B) 2022 LG에너지솔루션 적격 납품업체 등록 현대무팩스와 물류 AI/로봇 솔루션 혁신 MOU 체결 2023 CMES 베트남 사무소 개소(하노이) 제르테크(AI 서비스 기업) 흡수합병 기술성평가 'AA' 통과 2024 2023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선정 쿠팡 지분 투자를 통한 주주 합류 코스닥 시장 상장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미국 시애틀 소재 해외법인 1개사

씨메스는 해외법인(미국 시애틀 소재) 1개사(CMES Robotics Inc, 동사 지분율 100.0%)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CMES Robotics Inc의 주요 영위 사업은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의 제조/판매 및 서비스이다.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2024년 기준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부 매출이 73% 차지

동사는 주요 사업으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과 3D 검사 솔루션 사업,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 비중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 73%, 3D 검사 솔루션 16%, 유통 및 기타 11% 이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은 물류, 제조 솔루션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고객사 양산라인에 공급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3차원으로 인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와 로봇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공정의 로봇 자동화를 구현하여 기존 단순 반복 위주의 산업용 로봇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은 다시 물류 솔루션과 제조 솔루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류 솔루션은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LG CNS 등 대형 유통/물류 기업들에 납품 이력을 갖고 있다.

한편,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자체 물류 현장에서의 로봇 솔루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제조 솔루션은 현대차, 기아, HIL만도, 현대모비스, 태광, 창신, LG전자 등 국내/외 제조분야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며, 제조공정 내 부품의 로딩·언로딩, 페인팅나 본드의 디스펜싱, 부품 조립 등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씨메스는 여러 지능형 로봇 제조 솔루션을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고객사 양산라인에 공급하며 로봇 솔루션 사업을 확대해왔다. 구체적으로 씨메스의 각 제품 라인업은 아래와 같다.

씨메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주요 제품

구분	품목	세부분류	비고
물류 솔루션	디팔레타이징	박스, 포대 등 랜덤 디팔레타이징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비정형 수작업들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들을 로봇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팔레타이징	1-SKU, 랜덤-SKU 팔레타이징	
	피스피킹	Auto-Bagger Order Picking	
	보이드 필	완충재 자동공급(Voidfill)	
제조 솔루션	로딩/언로딩	자동차 부품 로딩/언로딩	대상물체의 위치나 형상의 변형이 많거나 다품종 제품에 대하여 고정밀 자동화 공정이 가능하도록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가이드스 솔루션
	어드밴스드 디스펜싱	신발 표면 페인트 스프레이	
		신발 표면 본드 디스펜싱	
		휴대용 기기 고정밀 본드 디스펜싱	
	어드밴스드 어셈블리	차체 마스크 및 검사 솔루션	
		디스플레이 패널 조립 솔루션	
		고무 플러그 마운팅 및 검사 솔루션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D 검사 솔루션 사업은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등 국내/외 대기업 제조공정 양산 현장에서 3차원 형상으로 제품의 품질 분석

3D 검사 솔루션은 3차원으로 사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고속/고정밀 3D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3D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들이다. 3D 검사 솔루션은 자동차 부품 검사와 이차전지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검사는 커넥터 핀 등의 부품 관련 3D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고객사로는 컨티넨탈, 비테스코, 만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사이다. 이차전지 검사는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원통형 이차전지의 다양한 3D 검사를 진행하며,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듯 동사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및 3D 검사 솔루션을 국내/외 대기업들의 제조공정 양산 현장에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씨메스 3D 검사 솔루션 주요 제품

구분	품목	세부분류	비고
자동차부품 3D 검사기	자동차 부품 3D 검사 솔루션	커넥터 핀 3D 검사기	기존 2D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원 형상으로 정밀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분석하는 형상 계측 및 검사 솔루션
		홀 내경 검사기	
		실린더, 써멀그리스 등의 3D 검사기	
이차전지 3D 검사기	이차전지 3D 검사	원통형 이차전지 3D 검사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씨메스 사업별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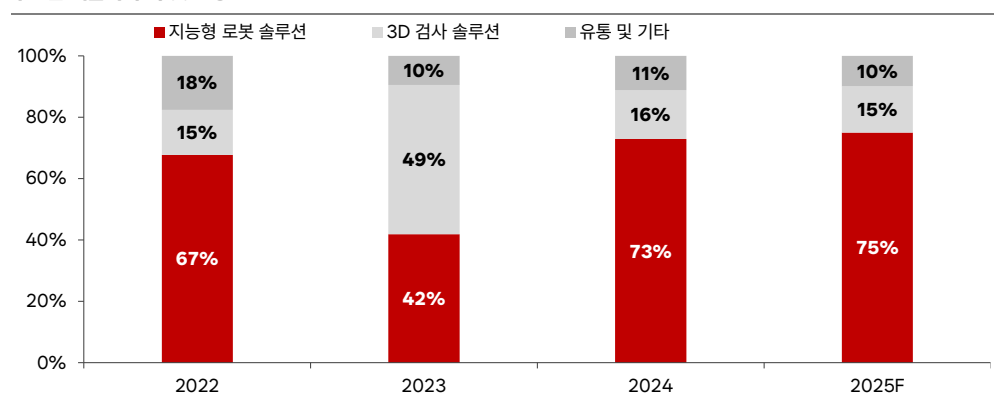
사업부문	주요 어플리케이션	적용 산업
 지능형 로봇 솔루션	• 물류 솔루션: 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비정형 수작업 공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시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솔루션  디팔레타이징  팔레타이징  피스 피킹  보이드 필	이커머스 / 제조업 / 소매업 / 식음료 미용제품 ...
	• 제조 솔루션: 제조 분야의 위험하고 힘든 작업들과 다양한 수작업 공정들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디스펜싱  어셈블리  로딩/언로딩	자동차 / 전기 / 전자 / 기계 의류 / 신발 ...
 검사 솔루션	• 검사 솔루션: 3차원 형상으로 정밀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제품의 품질을 분석하는 형상 계측 및 검사 솔루션  2차원 검사  자동차 부품 검사	이차전지 / 자동차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통사업은 3차원 스캐너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연구소에 납품**

이외에 씨메스는 기타 사업으로 유통사업(상품 매출)을 영위하고 있다. 유통 사업은 3차원 스캐너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당사는 이 사업으로 큰 매출을 창출하기 보다는 현재 국내 기업고객들이 3차원 비전기술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려 하는지를 파악/연구하는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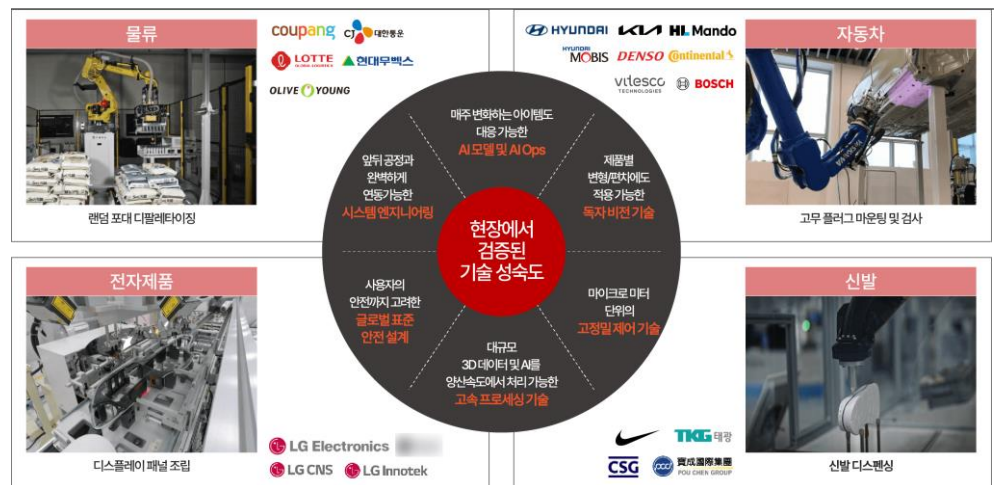
주요고객은 국내/외 물류 및 제조분야 대기업들

주요 고객은 국내/외 물류 및 제조분야 대기업. 향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고객 확장 기대

씨메스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물류 및 제조분야 대기업들이다. 향후 제조분야 쪽으로는 기존 자동차, 기계, IT 기업 외에 의류, 음식료,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고객 확장도 기대된다.

참고로 씨메스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서 하드웨어 중심 로봇 제조기업들(FANUC, 두산로보틱스 등)에게서 하드웨어를 소싱(조달)하여 동사의 AI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객 니즈에 맞게 최적화한 후, SI(설치 영역) 파트너사들(LG씨엔에스 등)과 함께 최종 고객에게 맞춤 제품으로 납품한다. 따라서 로봇 기업들과는 경쟁하면서도 소싱할 때에는 협력하는 관계이다.

산업별 양산 레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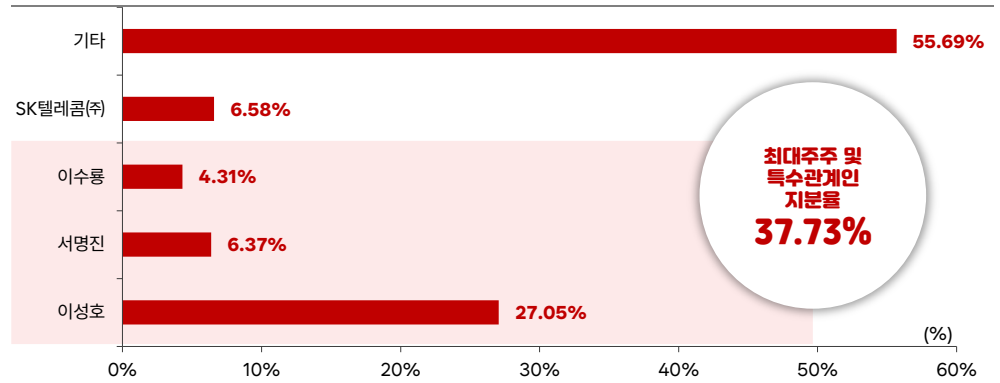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대주주 등은 이성호 대표이사 외 2인

최대주주 등은 이성호 대표이사 외 2인으로, 지분율 37.73% 보유

씨메스 최대주주 등은 이성호 대표이사 외 2인으로, 지분율 37.73%를 보유하고 있다. 이성호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출신으로, 1975년생이다. 1997년부터 (주)애크론정보통신에서 재직한 이래 Photodynamics 와 Orbotech Korea, (주)싸이로드에서 재직한 이후 2014년 씨메스를 창업하였다. 그는 창업 이후 현재까지 씨메스 대표이사직을 맡아오고 있다.

씨메스 주주 현황



주: 2024년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국내 로봇, 로봇 부품 산업/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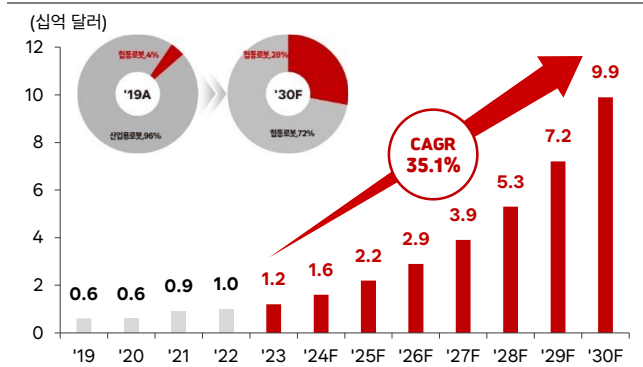
글로벌 로봇 및 로봇 부품 산업

성장은 추세적

글로벌 로봇 및 로봇 부품 산업의 성장은 추세적이다. 국내/외 로봇 신생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2023년 12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9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 시장도 2023년 28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776억 달러로 연평균 1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용 로봇 시장 내에서 협동로봇의 침투율은 2019년 4% 비중에서 2030년 28% 비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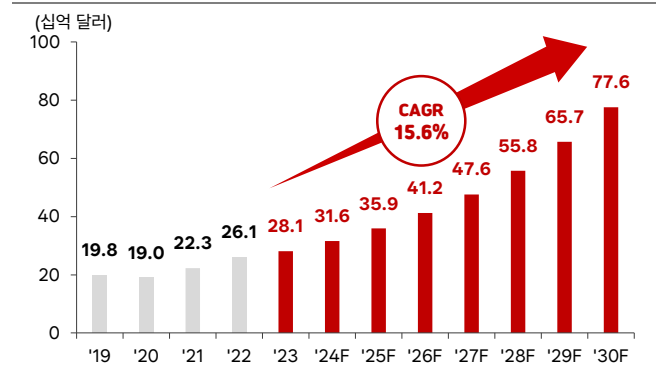
글로벌 로봇 및 로봇 부품 산업의 장기 성장 이유로는 1) 단순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기피 확산, 2)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 확대, 3) AI(인공지능)와 결합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Markets&Marke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Markets&Marke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대표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제조 기업은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

국내 협동로봇 분야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인 'HUBO'가 회사의 근간이다.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은 일본 혼다의 아시모,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플랫폼 및 레인보우로보틱스의 HUBO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동차의 F1 머신이 자동차 기술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은 로봇 공학의 정점에 있는 로봇 플랫폼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을 내재화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된 이족보행 로봇은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등이

2010년대에 잇달아 창업되고

이후 자본시장에도 상장됨.

2023년 주요 로봇기업들 실적은

시장 기대를 밑돌아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 뉴로메카가 2013년에, 두산로보틱스가 2015년에 설립되는 등 국내 주요 협동로봇 기업들의 창업이 잇따라 이어졌다. 이후 치열한 노력과 경쟁을 통해 국내 주요 협동로봇 기업들은 자본시장에 속속 상장하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년 2월 상장, 뉴로메카 2022년 11월 상장, 두산로보틱스 2023년 10월 상장, 씨메스 및 클로봇 2024년 10월 상장). 주요 로봇기업들이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한 만큼, 로봇산업 내 기업들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주요 로봇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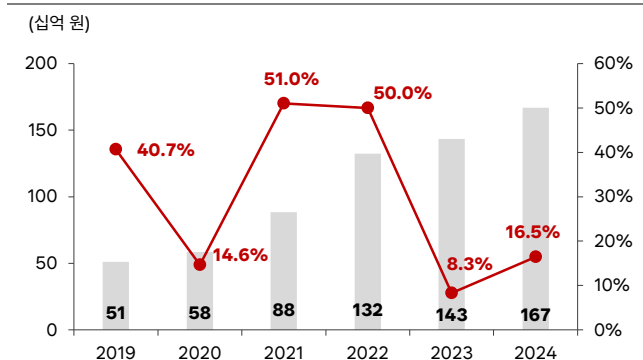
지 못하였다. 이는 1)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북미지역을 제외하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부담이 있었고, 2) 미래 산업 내 선도 지위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당장의 손익보다는 우수인력 확보와 신기술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생각보다 로봇 제조사와 로봇 수요자 사이에 충분한 접점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수요는 있지만 실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 수요가 높은지 로봇 제조사들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공정, 어느 서비스 부분에서 로봇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나 아이디어, 인사이트 부족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로봇/로봇 부품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은 뉴로메카, 클로봇, 에스비비테크 등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개선

2024년 들어 국내 로봇/로봇 부품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4년 연간 국내 주요 로봇 6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씨메스, 클로봇)의 합산 매출액은 1,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하였다. 업체별로 레인보우로보틱스(+26.8% YoY), 뉴로메카(+83.9% YoY), 유일로보틱스(+19.4% YoY), 클로봇(+38.0% YoY) 4개사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주요 로봇 6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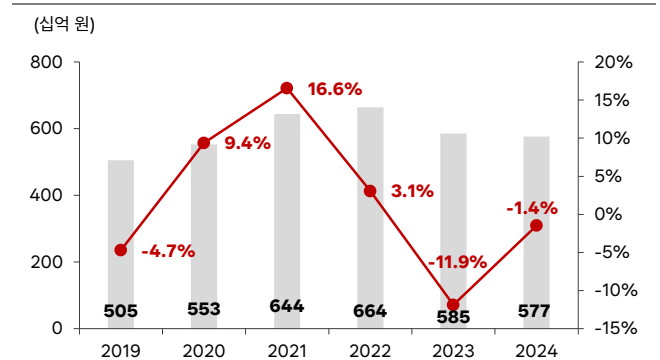
국내 주요 로봇 부품 5개사(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로보티즈, 알에스오토메이션, 하이젠알앤엠)의 2024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2023년(-11.9% YoY) 대비 감소폭은 줄었다. 에스비비테크(+6.6% YoY), 로보티즈(+3.1% YoY)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알에스오토메이션(-3.7% YoY) 등의 매출액은 부진하였다.

국내 주요 로봇 6개사 연도별 합산 매출액 추이



주: 씨메스, 클로봇은 2024년 상장 기업으로, 2022년부터 합산 대상에 반영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로봇 부품 5개사 연도별 합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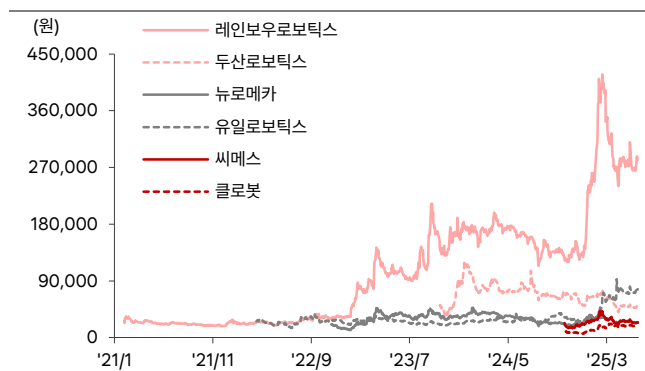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상반기 기준 로봇/로봇 부품 기업들은 대기업을 자본투자,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

이러한 실적 개선 흐름과 더불어, 2024년 말부터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반영되었다. 먼저,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로봇 등 AI 산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투입되며, 세제 혜택, R&D 자금,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쿠팡선을 행사해 지분율을 14.7%에서 35.0%로 확대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CEO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여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내 로봇 기업 관련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며, 2025년 상반기 로봇/로봇 부품 기업들의 주가는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등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25년 상반기 유일로보틱스, 클로봇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118%, 60% 상승했다. 유일로보틱스는 2024년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2025년 4월에는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적인 지분 인수 가능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SK 그룹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약 41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개별 공급 계약을 공시하였는데, 이는 2024년 매출액(352억 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형 확대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었다. 클로봇은 2025년 3월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협력 발표(클로봇의 범용 로봇 자율주행솔루션 S/W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율 이동로봇인 AMR H/W의 결합)를 계기로 전략적 시너지 기대가 부각되었다. 또한, 현대차 및 물류 기업과의 연속적인 공급 계약 발표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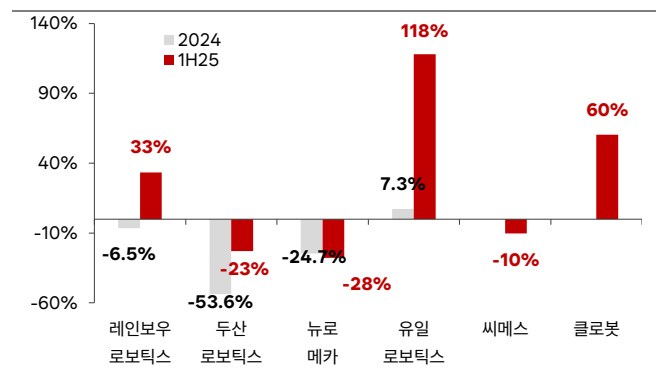
국내 주요 로봇 6개사 주가 추이



주: 2021.01.01~2025.06.10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로봇 6개사 주가 수익률 기간별 비교



주: 1) 2024.01.02~2025.06.10 기준, 2) 씨메스, 클로봇은 2024년 10월 상장하여 2024년 주가 수익률 부재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부품주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상승

국내 로봇 부품주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 휴머노이드 완제품 시장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의 수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으로 액추에이터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제품의 원가 중 약 70~80%가 액추에이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주요 로봇 부품기업 중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2025년 상반기 주가 수익률은 각각 123%, 108%를 기록하였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제품이 중국 Unitree Robotics의 휴머노이드 제품에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하이젠알앤엠을 포함한 기타 액추에이터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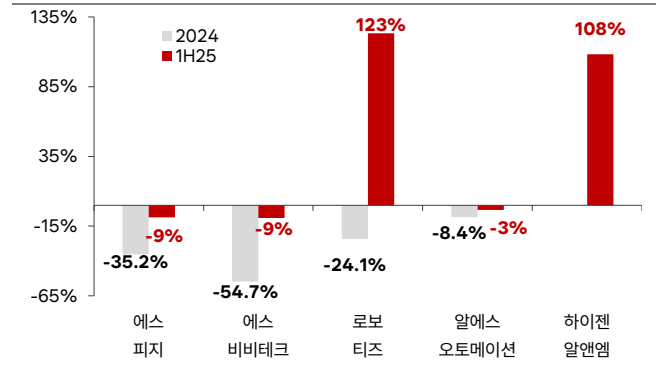
국내 주요 로봇 부품 5개사 주가 추이



주: 2021.01.01~2025.06.10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요 로봇 부품 5개사 주가 수익률 기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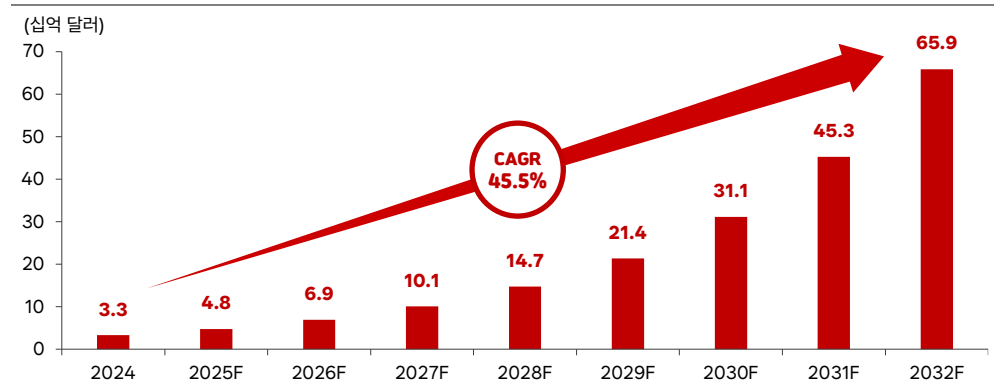
주: 1) 2024.01.02~2025.06.10 기준, 2) 하이젠알앤엠은 2024년 06월 상장하여 2024년 연초 대비 주가수익률 부재,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휴머노이드 시장: 아직은 성장 초입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45.5%로 고성장 전망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AI와 로봇 결합의 최종 종착지이자, 'Physical AI'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 산업이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2024년 3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5.5% 성장하며 2032년에는 약 6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 산업에서 하드웨어 결합을 통한 산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제조 산업의 원가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 2025.05,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테슬라와 피규어AI 중심의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선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인 테슬라(Tesla)와 피규어AI(Figure AI)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Optimus'는 2025년 최대 1만 대 양산 계획

테슬라는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Optimus'를 통해 생산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Optimus는 핵심 부품이 내재화됨으로써 단가 2만 달러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양산 단가는 약 4만 달러로 추정된다. 테슬라는 Optimus를 자사 차량 제조공정 내 자동화에 투입해 생산성과 비용 효율을 검증한 이후, 대외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공급처는 아마존(Amazon), 페덱스(FedEx) 등 대규모 물류 기업이 유력하게 거

론되고 있는데,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창고와 배송 전 공정 내 반복 작업에 적용되기 용이하다는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다. 아직 Optimus는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2024년 말부터는 일부 프로토타입이 실제 테슬라 공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상업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테슬라는 2025년 약 5,000~1만 대 수준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이를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규어AI는 범용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목표로 빠르게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업가치를 키움. 현재는 상업화 전 단계로 향후 기술 검증과 비용 절감이 과제

피규어AI는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으로, 일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23년 5월 'Figure 01'을 공개한 이후, 2024년 8월에는 배터리와 배선을 몸체 내부에 통합하고 6개의 카메라, 자체 비전-언어 모델을 탑재한 'Figure 02'를 선보였다. 2025년 5월에는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강화학습 기반 제어를 실제 로봇에 적용해 별도 튜닝 없이 자연스러운 이족보행을 구현한 3세대 프로토타입 'F03'을 공개,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다.

AI 기술 측면에서는 2024년 오픈AI와의 협업 종료 이후, 자체 개발한 비전-언어-행동(VLA, Vision-Language-Action) 모델인 '헬릭스(Helix)'를 발표했다. 헬릭스는 시각 데이터와 명령어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행동으로 연결하는 고도화된 AI로, "물건을 정리해줘"와 같은 포괄적 명령만으로도 냉장고와 선반을 구분해 물품을 정리하거나, 로봇 간 물건 전달과 같은 복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피규어AI의 기업가치는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3월 시리즈 A에서는 7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4억 달러를 인정받았고, 2024년 1월 시리즈 B 라운드에서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산업혁신 펀드 등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이 참여해 총 6억 7,500만 달러를 유치, 기업가치는 약 26억 달러로 급등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7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다만, 피규어AI는 아직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용화 테스트는 BMW와의 협업 사례가 유일하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 검증과 비용 절감 여부가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테슬라, 샤오미 등 글로벌 빅테크의 로봇 시장 진입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 주도형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

중국은 고사양 AI 칩, 정밀 센서, 모터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 미국에 비해 열위에 있으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베디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된 공공 투자 규모는 700억 위안(약 13조 5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 내 휴머노이드 제조기업 11곳 중 6곳은 각 연간 1,000대 이상의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요 휴머노이드 관련 3개 기업(Unitree Robotics, UB Tech, Agibot)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2016년 설립 이후, 2025년 주식회사로 전환 후 로봇 대량 양산을 위한 외부 자금 유치 중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는 2016년 설립되어, 고성능 4족 로봇과 함께 인간형 로봇 개발에 주력해왔다. 2020년에는 로봇 개 판매로 흑자 전환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높이 132cm, 무게 35kg의 최초 상용 휴머노이드 모델 'G1'을 공개했다. 2025년 5월,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조직을 유한책임회사(LLC)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외부 자금 유치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 매체 소후테크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100억~150억 위안(약 1조9천억 원~2조8천억 원) 규모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해당 투자금은 로봇 대량 양산에 활용 예정이다.

**유비테크는 2012년 설립되어
홍콩증시에 상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2025년까지 Walker
S 시리즈 500~1,000대를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

유비테크(UB Tech)는 2012년 설립되어 2023년 홍콩증시에 상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텐센트 등의 투자를 받아 성장한 유비테크는 소비자용 로봇, 교육용 로봇, 서비스/물류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소비자용 로봇 36%, 교육용 로봇 33%, 맞춤형 로봇 19%, 물류용 로봇 12% 이다. 유비테크의 최신 휴머노이드 모델 'Walker S'는 단순 스펙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의 Optimus Gen2와 유사한 수준이다. 유비테크의 Walker S 시리즈는 현재 폭스콘, BYD, 폭스바겐, 니오, 지리자동차, SF택배 등 9개 기업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유비테크는 2025년 중으로 Walker S 시리즈 500~1,000대를 자동차 제조사, 폭스콘, SF택배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지봇은 2023년 설립 후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2025년 상반기 '위안정 A2'가
중국, 유럽, 미국 인증을 모두
획득해 글로벌 상용화 요건을 충족**

아지봇(Agibot)은 2023년 2월에 설립된 상하이 소재 스타트업으로, 홍산자본과 BYD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아지봇은 2023년 8월 첫 휴머노이드 모델인 'RAISE A1'을 공개한 후, 1년 만에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완공했다. 2024년 12월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시작하여 962대의 로봇을 생산하였다. 2025년 상반기에는 주력 휴머노이드 모델인 '위안정 A2'가 중국, 미국, 유럽 3개 지역의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면서, 중국 내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요건을 충족했다. 아지봇은 2025년 상하이에 생산 라인을 신설해 테슬라 옵티머스과 유사한 수준인 3,000~5,000대 로봇을 출하할 계획이다.

미국/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스펙 비교

국가	Tesla 미국	Figure AI 미국	UB Tech 중국	Unitree Robotics 중국
제품명	Optimus Gen 2	Figure 02	Walker S	G1
이미지				
출시 시기	2023	2024	2024	2024
높이(cm)	173	168	170	132
무게(kg)	57	70	65	35
자유도	50	35	41	23
최대 속력(km/h)	8	4	-	7.2
최대 하중(kg)	20	20	-	-
배터리 지속 시간	2~4h	5h	2.5h	2h
활용 공장	테슬라	BMW	폭스콘/아우디/BYD/폭스바겐/니오/동평자동차/지리자동차/베이징자동차/SF택배	NIO
양산 규모 및 계획	2025년 5천~1만대 2026년 5~10만대 (하반기 외부판매)	1.2만대 규모 양산 공장 공개. 향후 4년간 10만대	2025년 1천 대	양산 중으로 추정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관련,
기술 혁신과 상용화 진전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기술적 성숙도와 상업화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핵심 기술의 완성도와 생산 단가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제품은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으며, 기술 혁신과 상용화 진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로봇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산업/산학 협력 등을 통해 선진 기업들과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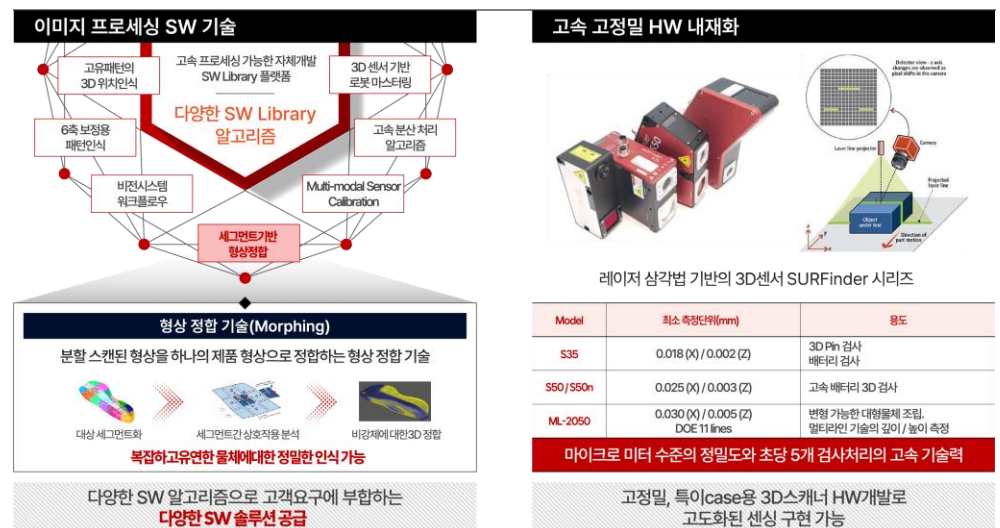
1) 업계에서 인정받은 로봇 S/W 관련 기술력

1) 자체개발 이미지 프로세싱 S/W 기술 및 3D스캐너 기술

씨메스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여타 경쟁사 대비 3가지 기술적인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씨메스는 자체개발한 고속 고정밀 이미지 프로세싱 S/W 기술 및 3D스캐너 기술을 갖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이미지 프로세싱 S/W 기술 핵심은 형상정합기술(Morphing)이다. 형상정합기술이란 분할 스캔된 형상을 하나의 제품 형상으로 정합하는 기술로서, 복잡하고 유연한 물체에 대한 정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고속 고정밀 3D스캐너 기술은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와 초당 5개 검사처리의 초고속 기술력을 말하는데, 동사는 고정밀, 특이case용 3D스캐너 H/W 개발/내재화로 고도화된 센싱을 구현 가능하다.

자체개발한 고속 고정밀 이미지 프로세싱 S/W 기술 및 3D스캐너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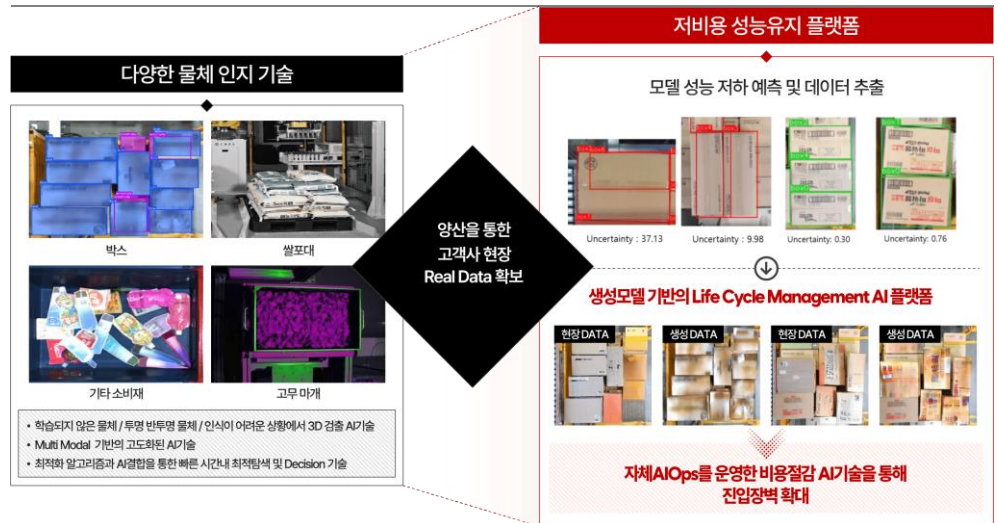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고도화된 Multi Modal AI 기술로 정확한 사물 인식과 판단을 구현해 작업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높임

둘째, 씨메스는 고객사 현장에서 검증된 사물인식 및 판단 AI(인공지능) 모델과 저비용 성능유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물류 고객의 작업 현장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물체나 투명 혹은 반투명 물체, 인식이 어려운 상황들이 매우 비일비재하다. 동사는 이러한 고객 현장에서의 어려움/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 Multi Modal 기반의 고도화된 AI 기술 활용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 최적탐색 및 Decision 로봇 기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인력 수요를 줄이고 근무 인력들의 작업 피로도를 낮추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용된 AI 기술/모델의 성능 저하 예측 및 다양한 데이터 추출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 검증된 사물인식 및 판단 AI 모델과 저비용 성능유지 플랫폼을 보유



주: AI Op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란 AI를 이용하여 IT 인프라를 유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시뮬레이션 기반 모션 생성과 고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 분야 확대

셋째, 씨메스는 로봇 모션생성과 정밀한 로봇제어 S/W 기술을 통하여 적용가능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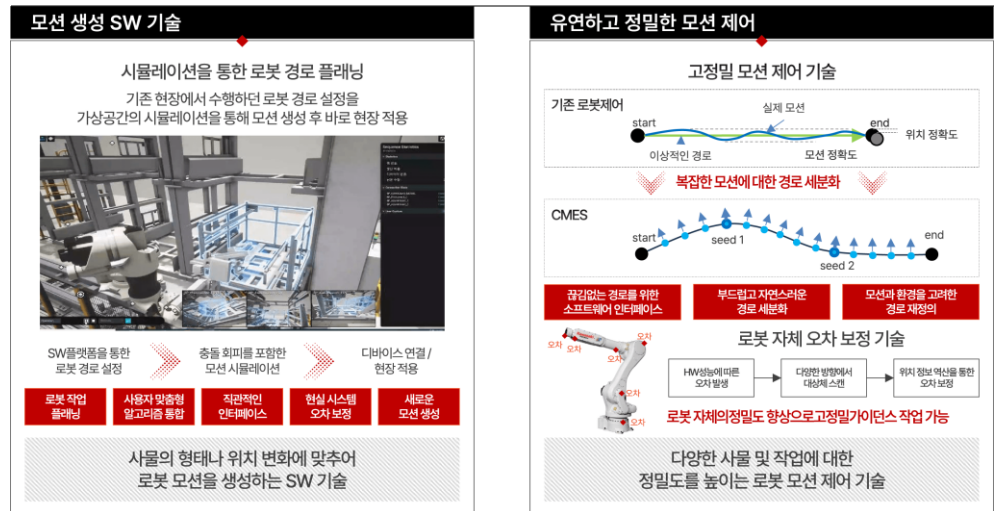
✓모션 생성 S/W 기술

시뮬레이션을 통한 로봇 경로 플래닝 기술이다. 기존에 현장에서 수행하던 로봇 경로 설정을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션을 생성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씨메스는 S/W 플랫폼을 통한 로봇 경로 설정-충돌회피를 포함한 모션 시뮬레이션-디바이스 연결/현장 적용 과정을 고객에게 빠르게 세팅하게 된다.

✓유연하고 정밀한 고정밀 모션제어 기술

동사는 고정밀 모션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물 및 작업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 로봇 모션 제어 기술로서, 복잡한 모션에 대한 경로 세분화를 통해 로봇 자체 오차를 보정하여 준다.

로봇 모션생성과 정밀한 로봇제어 S/W 기술을 통해 적용가능 분야의 확장 가능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Cell Full Stack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로봇 시스템을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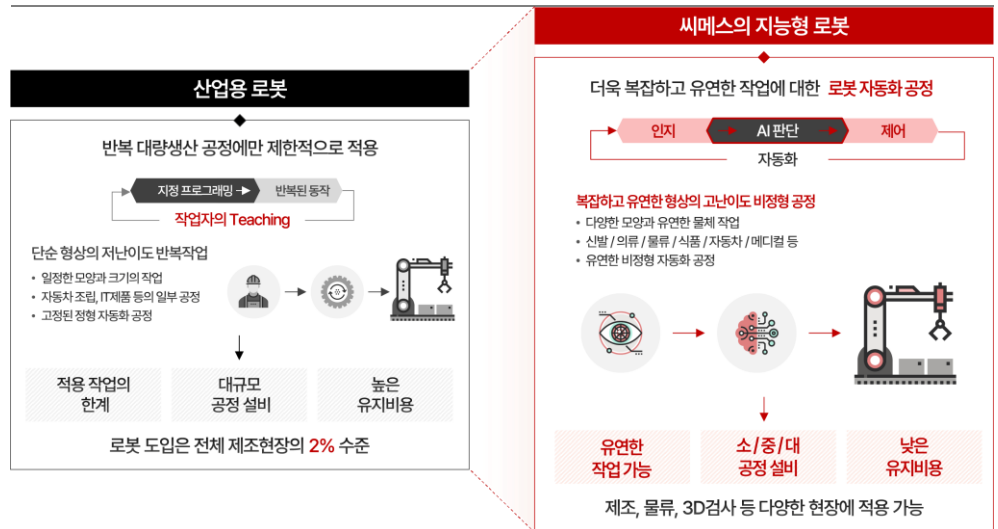
이렇듯 씨메스는 지능형 로봇Cell Full Stack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기업 설립 이래 단순 S/W 솔루션 제공 또는 단품 위주의 하드웨어 제작/판매를 지양하고, 난이도 높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토크로 고객에게 제공하여 왔다(아래 그림 참조). 즉 3D 비전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복잡한 비정형 물류 또는 제조 공정을 로봇Cell로 표준화하여 고객 맞춤으로 상용화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씨메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능형 로봇 솔루션 VS 산업용 로봇



자료: 씨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K텔레콤, GS리테일, 쿠팡 등
대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 보유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외부에서 인정받음**

씨메스의 이러한 기술력은 외부에서의 지분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SK텔레콤은 씨메스에 대해 2016년과 2022년 각각 9억 원과 1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로서 SK텔레콤은 씨메스 주식 137만 5,968주를 확보한 후, 상장 전 일부를 매각하여 2024년말 기준으로 주식 76만 3,968주(지분율 6.58%)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씨메스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GS리테일과 쿠팡도 전략적 투자자로서 씨메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각 지분율 5% 미만, 미공개). GS리테일에서는 과거 언론을 통해 "씨메스는 3차원 센서를 이용한 로봇 정밀 보정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물류 자동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외부 대기업(전략적 투자자)들의 존재는 씨메스의 기술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다.

글로벌 물류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글로벌 물류 기업에
피스피킹·디팔레타이징 로봇
솔루션 성공적으로 납품
→ 비정형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한 기술력과
커스터마이제이션 경쟁력 보유**

씨메스는 글로벌 물류 기업에 피스피킹(개별 상품을 집어서 옮겨주는 작업) 솔루션과 디팔레타이징(팔레트에 있는 박스들을 하나씩 내리는 작업) 솔루션을 구축해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물류 기업은 작업시 인력들의 피로 호소 등으로 인하여 공정 자동화 니즈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비정형 공정의 경우 로봇에 의한 자동화 전환이 기술적 난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사는 앞서 언급한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비정형 공정의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고객 호평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고객 내 일부 물류 공정에 동사의 피스피킹, 팔레타이징(제품을 팔레트 위에 효율적으로 쌓는 작업) 솔루션 관련 로봇Cell이 구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납품시 미국, 중국의 경쟁 기업들을 따돌리고 최종 선정됨). 당시 언급된 씨메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1) 뛰어난 처리물량과 처리속도, 2) 셋업 등 납품 전반에 대한 가격 경쟁력, 3) 우수한 커스터마이제이션(요구된 공정 특성을 반영, 최적화하는 셋업)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납품 레퍼런스 바탕으로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솔루션 공급 기대**

씨메스는 현재 글로벌 물류 기업에 대한 추가 납품을 위해 제반 준비와 노력을 진행 중이다. 기납품한 솔루션들에 대한 고객 반응이 양호하여 추가 발주를 받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추가 납품 시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중에 피스피킹,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솔루션 중 다수의 솔루션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발주는 고객의 본격적인 공정 변경 전개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보다 그 납품 규모는 클 수 있다. 한편, 씨메스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 대한 납품도 모색하고 있다. 규모가 큰 납품 이력이 쌓일수록 고객군 확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사 납품 물량 대응 위해
2026년말 전후로
신공장 착공 예정**

고객들의 납품 요구 물량이 클 경우를 대비하여 씨메스는 생산 Capa.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천안 2공장(신공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말 전후로 신공장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제조 공정은 주로 하드웨어 조립과 소프트웨어 개발/튜닝/탑재 등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Capa. 산정은 어려우나, 향후 신공장 완공시 Capa.는 기존 Capa.의 약 3배 수준(연간 매출액 600억 원 이상 가능 규모)일 것으로 파악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연간 실적 Review

2024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9억 원(-9.8% YoY),
-143억 원(적자지속 YoY) 기록

2024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9억 원(-9.8% YoY), -143억 원(적자지속 YoY)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8% 감소(VS 2023 매출액 76억 원)하였는데, 주력 고객향 신규 대량 납품 건이 연기되며 상장 (2024.10.24) 시 회사가 제시한 2024년 연간 매출 목표액(123억 원)을 크게 하회하였다. 납품 연기 사유는 타사의 타 장비 완성도가 미진하여 고객이 전체 라인 셋업을 미루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연간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전년(-100억 원) 대비 영업적자는 악화되었다.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인해 인건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상장 관련 1회성 비용도 약 3억 원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사 임직원수는 22년말 55명에서 23년말 109명, 24년말 155명으로 증가하였다. 단, 2025년부터는 인력 충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년 3월말 임직원수는 152명으로 파악됨).

1Q25 실적 Review

1Q25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9억 원(-7.9% YoY),
-53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억 원(-7.9% YoY), -53억 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경기 악화로 고객들의 주문이 기대 대비 부진했고, 주력 고객의 납품 건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1Q25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전년 동기(-37억 원) 대비 악화되었다. 이는 매출원가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15억 원 → 8억 원)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증가(32억 원 → 54억 원)한 점에 기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전년 동기 대비 +9억 원), 경상연구개발비(전년 동기 대비 +5억 원), 광고비(전년 동기 대비 +2억 원) 등이 악영향을 주었다.

2025년, 전년 대비 매출액은 성장하나 영업이익은 적자지속 전망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1억 원(+46.9% YoY),
-157억 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

2025년 동사 매출액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매출액은 101억 원(+46.9% YoY)으로 예상한다. 지연되었던 주력 고객향 대량 납품 건이 일부 하반기에 인식될 수 있을 전망이고, 2H25부터 경기가 반등하며 고객들의 주문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 연초 씨메스 사측이 기대했던 연간 200억 원 이상 매출액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 부문별로 2025년 매출액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매출액 76억 원(+51% YoY), 3D 검사 솔루션 매출액 15억 원(+39% YoY), 유통 및 기타 매출액 10억 원(+30% YoY)이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며 -157억 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매출액 규모 미비로 영업적자는 전년(-143억 원) 대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매출 측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관련 장비(서버 등) 구입비, 연구개발 위한 인건비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씨메스는 상장 당시 BEP(손익분기점) 달성 가능 매출액 규모를 연간 300억 원 내외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5년, 2026년 연간 매출액을 각각 101억 원, 21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는 바, 영업적자 규모는 2025년 정점 이후 2026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이익 흑자전환 가능 시기는 2027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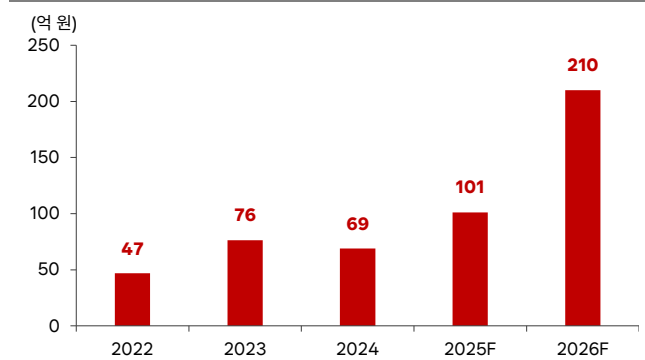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	76	69	101	210
지능형 로봇 솔루션	32	32	50	76	175
3D 검사 솔루션	7	37	11	15	25
유통 및 기타	8	7	8	10	11
영업이익	-67	-100	-143	-157	-81
지배주주순이익	-91	-157	-135	-149	-73
YoY 증감률					
매출액	-	63.2	-9.8	46.9	107.5
영업이익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144.2	-130.7	-207.4	-154.9	-38.6
지배주주순이익률	-193.5	-205.3	-195.4	-147.0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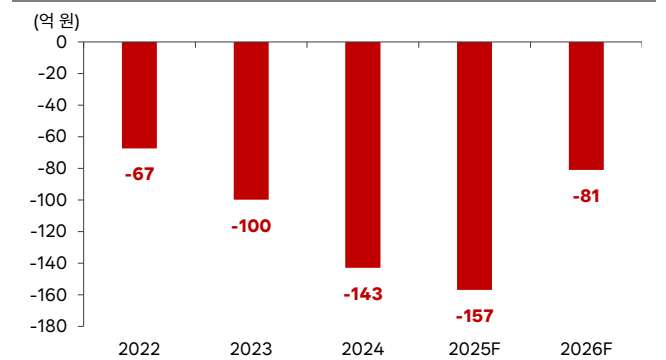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연결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연결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년 PSR 28.3배로 거래 중

**동사 PS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 대비 매우 높음**

2025년 6월 16일 기준 시가총액은 2,867억 원 수준이다. 2025년 동사의 예상 PSR은 28.3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 (1.8배) 대비 매우 높게 거래되고 있다.

Peer로 클로봇, 뉴로메카를 선정

씨메스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동사 Peer로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로봇 개발/판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은 국내 상장사 중 클로봇, 뉴로메카가 있다. 동사 Peer로 클로봇과 뉴로메카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참고로 동사는 2025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적자일 것으로 전망되어 밸류에이션 비교 지표로는 PSR, PBR을 선택하였다.

현재 비교 3사의 예상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각각 살펴보면, 씨메스 2025F 예상 매출액 101억 원, 시가총액 2,867억 원, 클로봇 2025F 컨센서스 매출액 650억 원, 시가총액 4,300억 원, 뉴로메카 2025F 컨센서스 매출액 430억 원, 시가총액 2,560억 원 수준이다.

먼저 2025년 비교 3사의 PS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SR 28.3배, 클로봇 PSR 6.6배, 뉴로메카 PSR 6.0배). 클로봇과 뉴로메카 대비 씨메스의 PSR 수치가 매우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동사가 경쟁사 대비 PSR 할증을 부여 받는다고 보다는, 매출액 발생이 지연되어 매출 부진에 따라 PSR 수치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위에 언급된 각 사 2025F 매출액 전망치 참조).

한편 2025년 비교 3사의 PBR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동사 PBR 4.8배, 클로봇 PBR 7.4배, 뉴로메카 PBR 11.1배).

클로봇의 PBR이 동사 대비 높은 것은 국내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협력 소식, 2024년 기준 동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외형 성장 속도(2024년 기준 클로봇, 씨메스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38.0%, -9.8%),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뉴로메카는 동사와 시가총액은 유사하나, 자본총계가 씨메스의 절반 미만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PBR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F&B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점과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등 로봇 핵심 부품 내재화 의 지에 따른 원가 절감이 기대되는 점,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점 등이 작동하는 측면도 있다.

향후 로봇/로봇 부품 및 지능형 로봇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보이는데 이는 제조업 및 물류 기업들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로봇 활용을 구조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일반 소비자들도 생활 속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로써 로봇 관련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다.

동사의 경우, 실적 대비 현재 PSR, PBR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우나, 관련 산업의 성장성과 실적 개선 강도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향후 점차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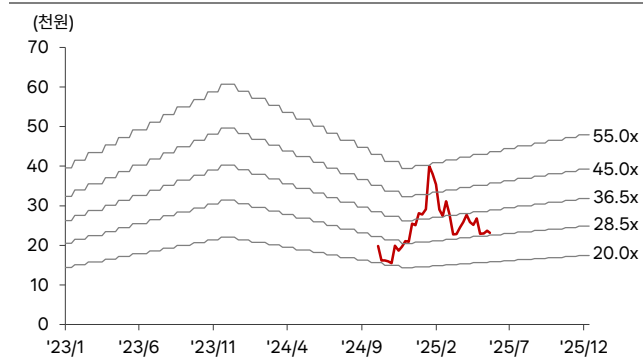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 원, 배, %)

기업명	종가	시가 총액	매출액		PSR		PBR	
			2024	2025F	2024	2025F	2024	2025F
코스피	2,947	2,349,406	3,720,962	3,004,684	0.7	0.7	-	1.0
코스닥	777	401,897	334,063	114,244	2.4	1.8	-	2.4
씨메스	24,700	287	69	101	33.5	28.3	3.8	4.8
클로봇	17,440	430	33	65	5.7	6.6	3.7	7.4
뉴로메카	22,600	256	25	43	12.0	6.0	28.0	11.1
동종그룹 평균					8.9	6.3	15.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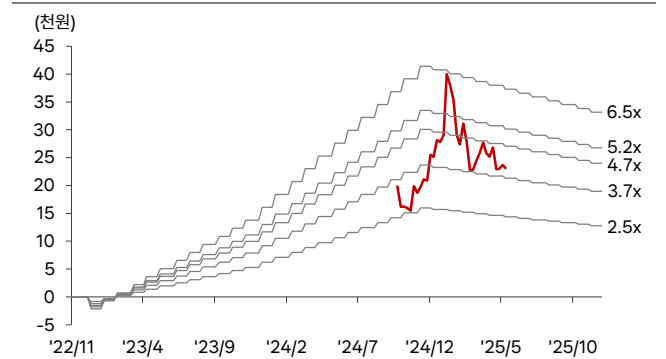
주: 1) 2025년 06월 16일 종가 기준, 2) 뉴로메카 2025F PSR은 당사 매출액 추정치 사용. 클로봇, 뉴로메카 2025F PBR은 2025년 1분기말 자본 총계 사용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S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경기 악화로 로봇 시장의 본격 개화가 지연될 가능성

**2025년은 금리 완화와 제조·물류
자동화 확산 등으로 로봇 산업의
본격 개화가 예상되나, 경기 악화
시 수요 실적 변동 가능성 有**

2025년은 본격적인 로봇 시장 개화 시기일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를 필두로 BMW,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기업들의 제조공장 내 로봇 활용도가 증가할 전망이고, IT/조선/자동차 등 산업 내에서 스마트팩토리 관련 물류로봇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 및 의료용 로봇 분야도 비교적 경기를 덜 타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여기에 금리 환경도 로봇 산업에 우호적일 수 있다. 미국 FED(연방준비은행)는 2024년 9월 18일 4년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당시 50bp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5.50%에서 5.00%로 인하)하였다. 이후 2024년 11월 7일에 4.75%로, 12월 18일에 4.50%로 잇따라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가 2025년 1월 출범,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어 FED는 2025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에서 관세발 인플레이션 조짐은 미미하여 2H25부터는 FED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등 여타 국가들도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2H25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고 이는 로봇 산업과 같은 고성장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몰고올 전망이다. 통상 금리 환경이 완화적이면 고성장 산업/기업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경기가 현재보다 급격히 악화된다면 로봇 및 로봇 부품 수요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상과 달리 로봇 시장의 본격 개화가 지연된다면 씨메스의 매출액, 영업이익도 동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중국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판가 측면 부정적 영향이 촉발될 가능성

**지능형 로봇 솔루션 분야는
가격 경쟁력 기반의 중국 로봇
기업의 대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낮으나,
장기적으로 로봇 산업 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경계 필요**

앞서 산업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중국 로봇기업들의 기술력과 성장세는 부담스러운 양상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산업용로봇/협동로봇/서비스로봇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마저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산 로봇은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미 중국산 서비스로봇이 국내 저부가 서비스로봇 수요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씨메스가 집중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분야는 고객별로 맞춤형 설계와 납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공정상 비밀 또는 노하우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지능형 로봇 솔루션 고객들은 매우 보수적인 구매 패턴을 보이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당장 지능형 로봇 솔루션 분야에서 고객들이 가격요소만으로 중국산 로봇 솔루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반적인 로봇 산업 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판가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내 로봇 업체들을 압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	76	69	101	210
증가율(%)	N/A	63.2	-9.8	46.9	107.5
매출원가	31	66	64	84	110
매출원가율(%)	66.0	86.8	92.8	83.2	52.4
매출총이익	16	11	5	17	100
매출이익률(%)	34.5	14.1	7.2	17.0	47.6
판매관리비	84	111	148	174	181
판매관비율(%)	178.7	146.1	214.5	172.3	86.2
EBITDA	-60	-89	-130	-128	-70
EBITDA 이익률(%)	-128.9	-116.6	-188.9	-126.6	-33.4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67	-100	-143	-157	-81
영업이익률(%)	-144.2	-130.7	-207.4	-154.9	-38.6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23	-57	8	8	8
금융수익	7	8	8	7	7
금융비용	30	46	1	1	1
기타영업외손익	0	-19	1	2	2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91	-157	-135	-149	-73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91	-157	-135	-149	-7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1	-157	-135	-149	-73
당기순이익률(%)	-193.5	-205.3	-195.4	-147.0	-34.8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91	-157	-135	-149	-7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82	-127	-137	-146
당기순이익	-91	-157	-135	-149	-73
유형자산 상각비	7	10	12	28	10
무형자산 상각비	0	1	1	1	1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0	-11	-20	-16	-84
기타	41	75	15	-1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4	-23	-20	-21	-2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11	-1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7	-17	-14	-10	-12
기타	-17	-6	-6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3	12	670	3	3
차입금의 증가(감소)	-12	18	6	3	3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669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95	-6	-5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6	-93	524	-154	-166
기초현금	222	227	134	658	504
기말현금	227	134	658	504	33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269	176	727	606	550
현금성자산	227	134	658	504	338
단기투자자산	0	0	0	0	0
매출채권	14	15	30	44	92
재고자산	13	12	15	22	46
기타유동자산	15	16	24	36	74
비유동자산	40	62	82	75	86
유형자산	18	32	44	26	27
무형자산	4	4	4	3	2
투자자산	11	10	23	34	45
기타비유동자산	7	16	11	12	12
자산총계	309	239	810	680	636
유동부채	358	20	40	59	85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2	2	6	9	18
기타유동부채	356	18	34	50	67
비유동부채	1	26	27	28	30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18	23	23	23
기타비유동부채	1	8	4	5	7
부채총계	359	46	67	87	115
지배주주지분	-50	193	742	594	521
자본금	2	45	58	58	58
자본잉여금	60	405	1,079	1,079	1,079
자본조정 등	13	24	21	21	2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25	-281	-416	-565	-638
자본총계	-50	193	742	594	521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N/A	0.0	3.8	4.8	5.5
P/S(배)	0.0	0.0	33.5	28.3	13.7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EPS(원)	-1,030	-1,752	-1,402	-1,282	-629
BPS(원)	-556	2,126	6,396	5,114	4,486
SPS(원)	532	853	717	872	1,809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82.1	-219.6	-28.8	-22.3	-13.1
ROA	-29.3	-57.3	-25.7	-20.0	-11.1
ROIC	N/A	-177.5	-188.7	-185.3	-62.8
안정성(%)					
유동비율	75.3	898.0	1,818.9	1,031.0	643.3
부채비율	-721.1	23.9	9.1	14.6	22.1
순차입금비율	-225.8	-53.3	-84.2	-78.8	-57.5
이자보상배율	-4.8	-5.9	-178.3	-183.0	-86.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2	0.3	0.1	0.1	0.3
매출채권회전율	3.4	5.4	3.1	2.7	3.1
재고자산회전율	3.5	6.1	5.2	5.5	6.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씨메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6.19	씨메스-똑똑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